

#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참석자 **길혜연** 기자, **김민혁** 기자, **김버리** 기자, **박수남** 기자, **윤찬혁** 기자(제12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사회 **윤석정**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 과장

정리 **길혜연** 기자, **박수남** 기자

사진 **박수진** 통일부 홍보담당관실 실무관



지난 8월 28일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편찬사업회에 방문했다. 편찬사업회가 11월 초 시민청 내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아래 '홍보관') 개관을 앞두고 '홍보관의 꿈'이란 주제로 집담회를 주최했기 때문이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언어를 통합하고 조선족, 고려인 등의 지역어를 집대성하고자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다. 편찬사업회가 2005년 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2015년까지 평양, 금강산, 개성, 중국 등에서 25차 공동회의를 개최했고 그 후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공동회의가 중단됐지만 남북의 통일을 준비하는 민간교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그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겨레말큰사전》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번 집담회는 홍보관을 통해 《겨레말큰사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홍보의 기술을 논의해봤다.

##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인상

**윤석정** 안녕하세요. 오늘 집담회는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인상은? ▲아직 발간되지 않은 《겨레말큰사전》, 미리 홍보해도 괜찮을까?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에 바라는 점 등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견을 보태주셔도 된답니다. 먼저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인상이 궁금합니다.

**윤찬혁** 최초의 현대적 국어사전인 ‘말모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편찬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김민혁** 중·고등학생 때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언어를 집대성하고 있다’고 알게 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과를 갖고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장기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벼리** 과거에 진행해 끝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공동회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에 대해선 남북 관계 차원보다 언어의 다양성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여겼고 남북의 언어를 집대성하는 사업이라는 게 매우 신선했습니다.

**길혜현** 우선 ‘겨레말’이라는 단어가 매우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다수 청년이 통일 문제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북이 만나게 된다면 가장 큰 동질감은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이 이 《겨레말큰사전》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한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미완성된 《겨레말큰사전》, 지금 홍보해도 될까

**윤석정**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집담회를 시작해볼까요. 《겨레말큰사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관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미리 홍보해도 괜찮을까요?

**김민혁**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사전 편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사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편찬사업 홍보를 꺼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된다면 남북 대화에서 거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홍보를 넘어 결국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공동회의 재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혜현** 공동회의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편찬사업이 장기간 진행돼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업이면서 역사적인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벼리** 오히려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마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겨레말큰사전》은 국민 모두, 우리가 모두 사용할 사전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사전이 완성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오늘 집담회에 참석하기 전 지인들에게 ‘사전 투표’를 했어요. 30명 중 21명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을 접한 응답자들도 교과서의 짝막한 내용과 뉴스 등에서 본 게 전부였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겨레말큰사전》을 찾아봤더니 부정적인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겨레말큰사전》을 많이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찬혁** 저는 남북 관계가 정치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비영리적인 측면에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남북민간교류 측면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몇 안 되는 사업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입니다. 아직 사전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대중에게 관심을 충분히 끌 만하다고 봅니다.



### 직접 홍보관을 운영한다면

**윤석정** 김벼리 기자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 국민 대부분이 《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사전이 완성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을 새겨들겠습니다. 아마도 11월에 개관할 홍보관이 《겨레말큰사전》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홍보관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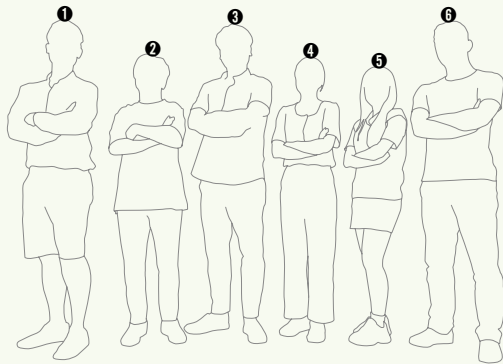
**김벼리** 홍보관에서 《겨레말큰사전》을 체험할 때 과정이 복잡하면 부담스럽고 재미없을 겁니다. 저는 ‘나만의 미니 《겨레말큰사전》 만들기를 기획할 겁니다. 제가 생각한 미니 사전은 영어단어 카드 처럼 10개 정도 골라 북한은 어떻게 말하고 남한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기재해 나만의 사전에 소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남한어, 북한어를 사용해 ‘겨레말큰사전’ 6행시 짓기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SNS에 해시태그로 6행시를 응모하면 당선자를 선정해 상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홍보가 될 듯해요.

**김민혁** 젊은 세대에게 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최대한 언급되도록 해야 하고 해시태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굿즈를 좋아하니 《겨레말큰사전》과 관련된 예쁜 굿즈를 상품으로 주는 것과 홍보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윤찬혁** 요즘은 사진을 많이 찍으니 감성적인 글귀나 사진 찍을 만한 글귀를 제작하여 전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박수남** 뮤지컬 〈빨래〉가 있어요. 지방 사람들의 서울살이와 외국인들의 한국살이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입니다. 언어적 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다룹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고려인, 조선족 등 재외동포도 포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과 탈북민 그리고 고려인이나 조선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극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혜현** 대학생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에 있는 TV 광고를 통해 서울 데이트 코스나 추천 명소로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알리는 방식도 좋을 겁니다.



① 윤찬혁 기자 ② 김민혁 기자 ③ 윤석정 과장 ④ 길혜현 기자 ⑤ 김버리 기자 ⑥ 박수남 기자

##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에 바란다

**윤석정** 아무래도 홍보관이다 보니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와 홍보에 관한 아이디어를 두루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단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민혁** ‘통일이 되니까 《겨레말큰사전》을 만들어야 한다’보다는 발상을 바꿔 ‘《겨레말큰사전》을 만듦으로써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접근이 현재 젊은 세대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이고, 남북민간교류 차원에서 《겨레말큰사전》이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말로 대중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길혜현**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민족의 대표성을 띠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관 디자인을 할 때도 민족을 대표하는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찬혁** 《겨레말큰사전》이 남북교류사업에서 몇 안 되는 중장기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대중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함께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대중들이 더욱 성과물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을 선사할 수 있는 홍보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남** 백 명의 사람이 한 번 오는 것보다 한 명의 사람이 백 번 오게 하려면, 영화관에서 나올 때처럼 여운이 남아야 합니다. 홍보관 출입문을 나설 때 뇌리를 스치는 뭔가가 있으면 《겨레말큰사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검색하고 찾아올 것입니다. 윤찬혁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이 유일하게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통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정** 오늘 시간이 허락해준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에 대해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의견을 제지해주신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집담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담회에서 나온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의견은 겨레말큰사전 홍보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한다. 겨레말 홍보관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특히 젊은 층의 관심과 유입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집담회를 마친 기자단은 편찬사업회 편찬실을 견학하고 자료실 등을 둘러봤다.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미리 둘러보는 듯한 풍경이었다. 